

몸에 안 좋은 음식만... '과식·고지방' 식당

주인은 의사, 종업원은 간호사 복장...손님 명칭은 '환자'

라스베이거스에는 건강 지향적인 외식 트렌드와 정반대로 '과식과 고지방'을 전면에 내세우는 유명 식당이 있다. 바로 병원 콘셉트의 패스트푸드점 '하트 어택 그릴(Heart Attack Grill)'이다. 이곳은 극도로 건강에 해로운 메뉴를 제공하며, 음식을 다 먹지 못하면 벌칙까지 받는다.



▲환자복을 입은 손님이 햄버거를 두고 간호사 복장의 웨이트리스와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SNS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이 채유(식물성 기름)나 소기름에 감자를 튀기는 것과 달리, 하트 어택 그릴은 순수 라드(돼지기름)에 튀기고 여기에 맥주와 테킬라를 더한다. 밀크셰이크는 순수 버터지방으로 만들며, 버거 패티는 1장부터 최대 8장까지 고를 수 있다. 이들은 이를 '싱글 바이패스(Single Bypass)'부터 '옥텟플 바이패스(Octuple Bypass)'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만약 '쿼드러플 바이패스(Quadruple Bypass)' 버거를 다 먹지 못하면, 간호사 복장의 웨이트리스가 손님을 공개적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벌칙도 준다. 담배 역시 필터 없는 제품을 판매하며, 어린이에게는만 사랑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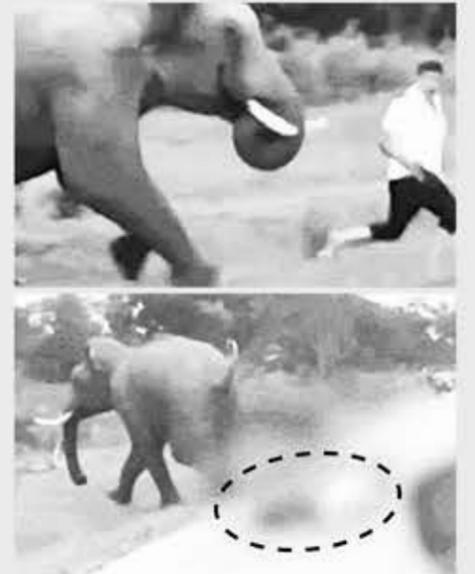
배를 제공하는 정도가 이 식당이 배우는 절제다.

이곳의 핵심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쇼다. 손님은 '환자'로 불리며 입장 시 병원 가운을 지급받고, 운영자인 존 바소는 의사 가운과 청진기를 착용한 채 직접 조리한다.

하지만 일부 설정은 논란을 낳았다. '간호사'로 불리는 여성 직원들의 선정적인 복장, 체중이 350파운드 이상이면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무게 제한은 가축용 저울에서 공개 계량을 통해 확인하는데, 불편한 구경거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식당 홍보 모델로 나섰던 일부 손님이 심장 마비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하트 어택 그릴은 라스베이거스의 기이하고 자극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매일 가기에는 위험하지만, '모든 것은 적당히'라는 원칙을 지킨다면 그 자체로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셀피 찍다 코끼리에 밟히고 벌금까지



▲ 야생 코끼리와 셀피를 찍으려던 한 관광객이 코끼리에게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SNS 캡처

인도에서 한 관광객이 셀피를 찍으려다 야생 코끼리에 밟히고 벌금까지 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 카르나타카의 한 야생 보호구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길가에서 당근을 먹고 있던 코끼리와 사진을 찍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목적자 다니엘 오소리오에 따르면, 관광객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셀피를 시도한 것이 코끼리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상에는 코끼리가 당근을 먹다 갑자기 코를 치켜들고 달려드는 장면이 담겼다. 코끼리는 관광객을 쫓아가 짓밟았고, 그 충격으로 관광객의 하의는 속옷까지 모두 찢겨 나갔다.

관광객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약 2만5,000 루피(약 285달러)의 벌금을 받았고, 현지 야생 동물 안전 규정을 몰랐음을 인정하는 영상 자백까지 촬영해야 했다.

관광객이 바지도 없이 땅에 쓰러진 채 구조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며 화제가 됐다.

산림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반응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챗GPT 말 들었다 환각 증세 입원

소금 대체재 물으니 산업용 브롬화나트륨 추천

챗GPT의 식단 조언을 따라다 독극물에 중독돼 몇 주간 입원하고 환각 증세까지 겪은 남성의 사례가 공개됐다.

학술지 '내과학 연보'에 5일 게재된 사례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은 소금 섭취를 줄이기로 결심하고 챗GPT에 소금의 대체재를 물었다. 그러자 인공지능(AI) 챗봇은 과거의 약품이나 산업 제조에 사용되던 화합물인 브롬화나트륨을 제안했다.

의료진은 원래 챗봇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남성은 브롬화나트륨을 소금 대신 3개월간 사용했다. 그 결과, 정신 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증적 망상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 남성은 이웃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믿었고,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면서도 병원에서 주는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치료 중 탈출을 시도하다 결국 비자발적 정신과 감금 조치를 당할 만큼 심한 편집증과 환청, 환시 증세를 보였다.

사례 연구에 참여한 의사들은 환자가 챗GPT 3.5 또는 4.0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직접 3.5 버전을 테스트해 보았다. 그 결과, 브롬화나트륨을 염화물의 대체재로 제안하는 답변을 받았다.

연구 저자인 오드리 아이젠버거, 스티븐 티엘크, 애덤 반버스크리크 박사는 "챗봇의 답변이 맥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건강 경고를 제공하거나 왜 알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라면 당연히 물어봤을 질문이다.

의료진에 따르면, AI는 맥락 없이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소금 대체재를 물었다면 전문가가 브롬화나트륨을 언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구팀은 "챗GPT와 같은 AI 시스템이 과학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고, 결과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니어 메디칼 무료 신청 및 관리

65세 이상 메디칼 신청 도와드립니다.

- 자산 폐지로 인한 메디칼 자격 쉬워져
- 인컴으로만 메디칼 신청 가능
-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싱글 메디칼 신청 가능
- Share of Cost 분담금 삭제 신청

이제 메디칼 신청 / 메디칼 서류 관리를 하나로!
매주 목요일 부에나팍 오피스에서 상담드립니다.

2025년

시니어 메디칼 자산제한 폐지!

*** 65세 이상 보유 재산 규정 없애 ***
인컴 조건만으로 메디칼 신청 가능!



KCSS 시니어 서비스 213.220.6620 / 323.628.5376